

구마가와주쿠: 시몬초

구마가와주쿠는 와카사 지역과 수도 교토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인 와카사카이도를 따라 물자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한 역참마을이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구마가와주쿠는 가민초, 나칸초, 시몬초의 3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몬초

이 지역은 오바마 항구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와카사카이도를 통해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시몬초 입구 근처에 있는 석비는 구마가와주쿠에서 효행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요시치라는 남성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요시치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매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가 굶주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곳 근처에 있는 구마가와주쿠 체험교류시설 요시치는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건물은 전시회, 체험교실, 와카사 문화에 대한 강의를 개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몬초는 1912년 교토에서 개업한 미술랭 3스타 요정 '기쿠노이'의 창립자인 무라타 도라키치의 옛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기쿠노이의 3대 주인인 도라키치 손자의 도움으로 이 건물은 와카사 지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무라타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몬초와 나칸초 사이 도로에는 '마가리'라고 불리는 L자형 모퉁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만일 적이 침입했을 때 공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성 아래 도시에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15~16세기경에는 구마가와주쿠 근처에 산성이 있었고, 당시 마을 서쪽에 이 모퉁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마가리의 위치는 시몬초가 구마가와주쿠의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늦게 개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시몬초는 가민초나 나칸초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현재 개인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마차야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